

防水의 「아스팔트·루핑」을 넣어 施工하는 方法이 있으나 통부 底板과 壁板과의 接合部分에 對한 施工

은 防水上 細心한 注意가 필요하 다.

(2) 또한 完全性を 期하기 위하

여는 底板과 壁板은 同時에 「콘크리트」를 澆과 同時에 蓋板과 配管貫通部는 地下水位보다 높은 部

點檢手記

點檢 第四班

李 一 光

〈釜山支部 點檢課〉

그 이름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산지부 점검과 제 4 반—여기에 김반장(기계), 심총무(건축), 잠대리(전기) 그리고 이아무개(화공)가 부산에서도 莫弱莫強한 「팀」으로 우리들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만치, 우선 이 제 4 반원의 별칭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 본협회에서도 경력으로 치면 막강한 수사반장(?) 김반장을 위시하여, 식사하고 차 마신후 제일 뒤에 나오면서 항상 오백원권 몇 장씩은 예비하고 있는 아주 건강히 옆으로 퍼진 심총무(?), 항상 식당에서 백반 추가시키며 차만타면 잠「파아티」하는 미스터」남이 잠대리(?)로 변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앞도 못가리면서 남위해 소개같은것 잘 하고 다니는 이아무개, 이 제 4 반의 점검실무와 이모 저모를 두셋 간추려 본다. 피타제이지, 「메가」, 「콘벙스」, 「디텍터와 「파일」을 쟁겨 「헬멧」을 쓰고 출발한다.

○월○일/○+1일

조금 찌뿌듯이 흐린날이다. 한국 유일의 「맘모스」 냉간압연공장 행이

다. 정문에서 거의 1km를 달려들어 사무실에도착하였다. ○○과, ××실을 거쳐 회의실에 들었다. 각 전공별, 담당별 전담과장의 안내를 받아 오전에는 겨우 VIP 「코스」같은 Outline—우선 코끼리등에 올라가 경치, 줌 보고—오후부터 工場 棟別, 工程別로 「체크」해나갔다.

연이은 두켢날에 局所工程別 Plant System의 설치도면과 기타 저장시설 설비도면을 사본 해 받아 점검하면서, 67「톤」의 Butane저장 「탱크」를 눈으로 어루만진다. 코끼리 발을 더듬고서 코끼리를 알아보려는 우매함에서 벗어나길 재삼 마음속으로 다짐되며, 「탱크」높이 20m위에 올라가 후들거리는 두다리에 갈초신경이 쭈뼛하여움도 알지만 통기관속에 손가락을 넣고 더듬어 보고서야 마음편히 「체크」할수 있는 우리들 이러니……드거센 부산항만의 바닷바람에 작업복 가래미가 훑날릴 즈음에는 모를 투지와 보람이 뒤엉켜 든다. 이따금 느껴지는것—처음엔 앞에선 안내자가

나중에는 점검원을 따라오는 수행원으로 전도되면서, 멀찌감치 밑에서 올려쳐다보는 눈에는 “저 친구들 신들렸나?”고 마치 의아해 하는 것이 무리한 느낌일까?

약속된 시간처럼 거진 오후 4시경에 마무리하여 회의실로 돌아와 누락된 부위가 없는가 「체크」하며, 정리하여 간단한 즉석 Memo감을 발송한다.

회의실—죽 둘러 배석된 중역진 앞에서 김반장이 당협회의 점검취지·목적에 대한 概要를 간단히 얘기하고 이어서 기계사항에 대한 얘길하고 있다. 잔기침을 자주 하는 걸 보니—좀 일은 모양, 각 분야에 걸친 지적 및 보완사항을 제시해주고, 점검원의 견해와 중역진 내지 기술부서장의 질문—확인—답변의 열기 있는 타의동안 사 오십분이 흘렀다. 공장측의 만족스런 치사와 감사하단 얘기를 듣고 배웅을 받으며, 흔들리는 「버스」 뒷좌석에 마치 전선출 위에 참새처럼 쫄쫄뚱(?) 앉아 달린다. 차창밖의 저물어가는 四位를 눈짓해 보며, 젊음의 基底部位에서 上向해 오르는 一 抹의 보람을 입가에 달며, 벌써 졸고있는 잠대리를 툭 치며 “잠형! 잠시다”고 짓궂게 一 喝해 버린다.

×월×일(월요일)

××섬유공업사, 돌아가는 점검차에 「굿바이」하며 점검 제 4 반이 들어선 곳은 예비점검 때 얘기가 충분히 되어있었던 ×상무가 출장중이라고 한다.

분에 位置하도록 施工 함이 좋다.

(3) 配管은 될수 있으면 「맨호

울」부분에 集約하여 Protector에 테를 두어 이를 蓋板과 一體가 되도록 함과 同時에 配管貫通部를 熔

接하여 防水效果를 期待하는 것이다.

끝

전후를 잘 모른다고 自答하는 총무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얘기하여 이해, 수공시킨후 공무과장 전기주임 동석하여 준비된 점검자료를 펼쳐놓고서 점검수행을 위한 사전 상의물 거의 다 끝내갈때, “누구야! “어디서 왔어!” “왜 애들 데리고 이래!” “빨리 제 일이나 하러 안가나!(총무 공무 전기주임더러)”에 누구하나 말 한마디 할 새 없이 세사람이 천장으로 쫓아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말을 하려고 하니“점검인가 뭔가 우리 안반아!”고 一喝聲해 버린다. 아마 사장인 모양이었다.

우리일행이 문안, 밖에 줄위에 걸린 빨래처럼 못박아 섰다가, 김반장이 다시 들어가서 “저, 말씀좀……” 시작하니 “시간없어!”하고 문을 탁 달아 버린다. 돌아 돌아보며 우리는 나온다. 아 닭쫓던개 지붕쳐다보는 꼴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뻔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 졌으니……」도 아닌 “내가 뭐며, 우린 뭘하러 왔느냐? 고 비좁아 오르는 속을 「화재보험 협회의 Form(?)」으로 덮어 다독거리 자위 하지만—「아, 월요일부터 빵꾸구나……」면서, 흡사 새벽밥 먹고 도시락 싸들고 일터에 나갔다가, 空치고 돌아오는, 비길데 없이 허전하고 씩쓰레함을 안고서 쿵닥거리는 산업도로 위의 「버스」에 몸을 싣는다.

누가 침묵을 깨다.
「점심이나 많이 먹고, 허리에 힘이나 모아, 오후엔 일반물건이나 나가자……」
「……」.

△월△일(타요일)

Oh! Happy half-holiday!

예비점검을 나간다. 될수있는한 해 오도록 북명받은 공장 예비「카아드」6매를 받았다. 오랜만에 「백타이」와 옷 매무새를 두어번이나 거울에 비춰 본 후 큰 마음 먹고 거북선을 한갑 사서 안 「포켓」에 넣고서, 현관앞의 점검차에 탄 인원의 머릿수를 헤아려 보고는 슬쩍 엇혀 탔다. “적당하고 편리한(?) 곳에 그냥 벌주어 주소!” 하며 운전사에게 한쪽눈을 정긋 해 준다.

우선 처음 △△가공사에 들어선다.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직지해진다—(초장부터 빵꾸나면, 전부가…하는 「징크스」) 총무과장을 만나 대좌하여 「어디서, 무엇하러, 누가 왔음을 정확히 얘기한 후 친절에다 없는 뱃심을 가미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필요한 얘기를 해두며—「저담배 좀 피워도 괜찮습니까?」에 「예, 물론이죠」를 듣고서 얼른 거북선 한 개피를 권하고 나도 불을 땡긴다(조금은 아까운 생각이 안들리야 어디 있겠오만……) 그리하여 내 느낌 같아선, 일사천리로 끝낸다. 이 예비점검과 기분 좋은 수락과 자료 제출 사항의 준비 요건이 확실하여 시원해진 여세를 몰아쳐서 「버스」·「택시」·그리고 물고

걸어 올라 도합 다섯건이 「오케이」된다.

「저, 몇십니까?(시계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 안차고 있으니깐……」
「——」

열 두시하고 반이구나, 뭘 먹긴 먹어야 할때인데……그러나, 마지막 남은 1건 완료의 妙한 느낌에 찾아가는 곳은—공장주가 해외에 있고 관리자만 천 소재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임을 듣고, 관리자과 1시간여를 유—강—유 「어프로치」를 계속다가 “여부 확인하여 내월초까지 필히 연락”의 약속을 받고 돌아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 건 제외하고는”의 조건부 滿船—즐겁다. 사무실로 드니 내위가 이제야 S.O.S 가을 그리고 토요일 오후.

오늘 같은날 제일 실감나는 노총 각처지.

「주여(酒女), 어디로 가야 하올지?」 밤 가을 높은 하늘과 鶴처럼 여린 목줄로 시려가는 주머니 속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거니며 自問할까?—「鶴이 뭐 고카도 갯지령이를 쳐다볼까?」 “허(虛)! 요센 사람의 머중에도 지령이며(?)도 있다고들……”

... ..!

자! 點檢員들이여 뱃패치처럼 일하고, 鶴처럼 걸이나 一禪이나 하며,

그래도
고개는 들고!

(끝)